

# 마음은 몸의 운전수 좋은 생각해야 '불생불멸'

## 자광 스님

(전 직지사 주지)

### 1.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길

"우리에게는 두 사람의 아버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나를 낳아 준 아버지이고, 한 사람은 정신세계를 인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을 바른 세계로 인도해주는 아버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초학교 6학년 때 김룡사로 가을 소풍을 온 소년은 안내하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설레었다. 첫 돌 전에 돌아가서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가 이곳 김룡사에 계신다고 하니 얼른 만나보고 싶었다.

소년은 스님에게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았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나한전에 들어갔다. 나한전의 문을 여는 순간 금색의 몸을 하고 있는 불상이 눈에 들어왔다. 저 분이 아버지라 생각하니 너무 반가워 외곽 꺼안고 싶었다. 그동안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를 몇 시간이고 목놓아 불렀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불상 옆에 있는 수많은 나한들 또한 아버지로 다가왔으니 소년은 한꺼번에 많은 아버지를 얻은 것만 같았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없던 설움이 씻은 듯 날아갔다.

중학교 1학년 때 하늘같이 의지하고 살았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오른쪽을 잃게 되었다. 소년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어린 나이에 인생을 알 수 없는 저만 평탄치 않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절망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김룡사의 화주보살이었던 시어머니를 따라 열심히 절에 다녔다. 지금은 열반하신 해암 스님을 뵈게 된 어머니는 "내가 왜 팔이 끊어져야 하는 고통을 당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그랬더니 해암 스님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사람들에게 오른손으로 술집을 가리켜주었으니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해암 스님의 말씀 한 마디에 어머니는 모든 것이 운명임을 절감하고 전생 빚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부처님께 매달렸다. 성철 스님이 김룡사에 주석하였을 때 어머니는 성철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는데, 그때 불명이 '여래자(如來子)'였다. 성철 스님께 여래자의 뜻을 물었더니 '여래의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라고 풀이해주었다.

"보살 아들은 출가 할 운명을 타고 났으니 여래의 아들을 낳은 것이 맞지? 그러나 그 이름을 줄 수밖에 없지."

성철 스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는 '아들을 출가 시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역겹의 수많은 인연의 고리에 의해 자광 스님은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미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 김룡사로 출가해 주지 소임 지내...전국 다니며 법문

###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행동되니 말조심하라"

터 출가의 길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었던 곳이 김룡사였는데, 자광 스님은 십몇 년 동안 김룡사 주지 소임을 맡아 일했다. 특히 김룡사 중창설화의 주인공인 '김룡'이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마치 하기 위해 환생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어진다.

자광 스님은 스물여섯 살 때 팔공산 복지장사에서 도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다음은 은사인신 도봉 스님으로부터 받은 법어인데 이것이 평생의 지침이 되었다고 한다.

유연직주(緣緣直住) 인연이 있으면 머물러라. 막존시비(莫存是非) 어떤 일이 있어도 시비를 두지 말고 불합소홀(不合所忽) 나오는 바를 탐하지 말라. 무연이거(無緣而去) 인연이 없으면 떠나가라.

"은사 스님은 평생을 수행자로서 울곧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머물고 머물러도 시비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다 되돌려 회향하고 또 인연이 없으면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자광 스님은 실상사, 봉암사, 직지사 등 여러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아 수십 년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기도 했다. 은사의 가르침대로 인연 따라 살다보니 지금은 물갈이 바람같이 떠돌면서 법문 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법문을 토하는 것이다. 스님의 다이어리를 보면 쉬는 날 없이 법문 일정이 빽빽하게 적혀있다.

사람들은 자광 스님을 가리켜 설법제일인 '부루나존자'라고 한다. 부루나 존자는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쉽게 설명해주었

기에,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제일'이라는 인가를 받게 되었듯이 자광 스님 또한 그러하다. 불교TV에서 <원각경>과 <중도가> 강의를 했는데, 어려운 내용을 참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냈기에 스님의 인기는 끝없이 치솟았다.

자광 스님께서 설법제일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 그 이전에는 경상(經)에서 무수한 낮과 밤을 맞이하고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광 스님은 관음 스님을 비롯하여 구산, 일우, 각성 스님 등 대강백을 모시고 경학과 어록을 두루 공부했다.

### 2. 온갖도 없고 갈곳도 없으니...

완주 송광사에서 자광 스님의 법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길을 내쳐 달려온 것이다. 다행히도 밤을 도와 내리던 비는 수국해졌다. 송광사 설법전에는 이백여 명의 사람들이 정좌하고 스님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다. 설법전 바깥에는 자리가 없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자광 스님은 그날의 법문 내용을 A4용지에 앞뒤로 소상하게 적어 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청법가가 끝나고 자광 스님이 사자좌에 오르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여러분, 박수소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누군가가 허공이라 답했다.

"허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돌아옵니다."

자광 스님은 주장자를 번쩍 들어 보이면서 말씀을 이어갔다.

"이 주장자는 죽었다고도 살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조실 스님들이 '이 주장자 안에 모든 법문이 다 들어있다' 하고 말을 마치는데 제가 오늘 그 뜻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주장자를 든 것입니다. 이 주장자가 된 나무는 살았을 때는 썩어지지 않고 한 자리를 지켰지만, 죽어서는 이렇게 온 천지를 다니니 죽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 나무는 생명이 없으니 살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도 이처럼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조실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것은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의 운전수이니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행동이 되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행동이 곧 버릇이 되고 버릇이 곧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운명에 부처님의 기운을 좀 많이 불어넣어서 자신을 완전히 바꾸어야겠지요? 무명을 사랑하면 윤회를 하고, 광명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불생불멸의 세계에 갈 수 있어요. 마음의 실상을 깨쳐서 무생법인을 증득해야 합니다."

자광 스님은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방편 불교에 그대려서 마음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방편 불교보다는 진실 불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진실불교란 내 스스로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밥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내 배가 부르지 않듯이 좋은 일을 하지 않고는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복 받는 것도 누가 대행해 줘니까? 자식들을 위해 절에 와서 시주하는 것을 대행이라고 하면 대행이라 할 수 있어요. 대신 기도해 주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자식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고 불교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편불교보다 빠르고 복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법문 들도록 하세요."

스님은 일반적인 법문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기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끌어갔다. 스님은 또 다시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하고 묻는다. 대중들은 "은 곳이 없으므로 갈 곳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과거가 있으므로 온 곳이 있고 미래가 있으므로 갈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고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밖에는 아무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bugu**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앞종교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현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목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

##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목는해에 소띠,뱀띠,닭띠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약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 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

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해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당되는 문은 약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의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